



광남일보



“피해 심각...하루빨리 일상 회복되기를”
수마 흔적 가득...침수 가구·가전제품 등 거리에

6



광주은행, 베트남 모바일티 플랫폼과 협업
(주)오케이세에 전략적 투자...디지털생태계 확장

7



광양전어, 전국 미식이 입맛 유혹
전어축제, 9월 12~14일 망덕포구 개최

9



영암 학이머문살, 국가대표 식탁 오른다
친환경 농업 재배...선수촌에 3년간 30t 지원

10

조간 제7901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음력 6월 18일)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광주가 최적지’

과기부, 2조5000억원 규모 공모 임박...시, 기업과 입지 타진
부지·전력 인프라 등 집적...“1단계 사업 성과로 반드시 성사”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 3차 공모를 앞두고 광주시가 관련 기업과의 접촉을 확대하며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광주시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를 ‘AI 중심도시’로 육성하기로 약속한 데다 관련 기업과 연구소가 집적돼 있는 ‘AI 1단계 사업’의 인프라를 강점으로 유치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가AI컴퓨팅센터 구

축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2027년까지 1억사플롭스(F)급 AI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에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2조5000억원으로 인공지능 R&D(연구개발), 스타트업 육성, 산업 데이터 거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AI데이터센터 3차 공모를 이르면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실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1·2차 공모를 진행

했으나 정부가 과반 자본(51%)을 보유하는 구조로 민간 자율성이 제한되고, 특수목적법인(SPC) 청산 시 매수청구권 조항 등 투자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 기업들이 응모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기업 의견과 금융권, 공공기관 의견을 종합해 공모 조건을 일부 완화, 이르면 이달 말에서 9월 초에 국가AI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공모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업이 공모 주체가 되도록 구조를 변경해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이 3차 공모를 앞두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자체 중에서는 ‘국가AI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인 광주시가 가장 적극적인 유

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이미 3곳 이상의 기업들과 협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광주는 AI 관련 기업과 연구소가 집적돼 있어 ‘AI 1단계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추가 확장 가능성도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 정부가 AI 2단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6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고, AI지식산업센터 건립이 확정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 기반도 강화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조속한 국가AI컴퓨팅센터 3차 공모를 요청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속도와 집적이 가장 중요한 AI 산업의 특성



광주시가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사진은 국가AI데이터센터 조감도.

고려해 현 AI집적단지 인근에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유찰된 국가AI 컴퓨팅센터 공모사업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주체가 지자체가 아닌 기업인 만큼, 다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가AI컴퓨팅센터 입지를 광주로 정하고 응모하도록 유치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민주주의 지킨 광주·전남 이제는 특별한 보상 있어야”

정청래 대표, 무안서 첫 최고위
공공의대 등 숙원사업 지원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전남도당에서 정청래 대표 체제 첫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인 호남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전당대회 직후 전남 나주 수해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호남을 찾아 당 지도부 회의를 주재했다.

정 대표는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1980년 광주 시민들의 희생정신 덕분”이라며 “이제 민주당이 ‘광주에 대해 특별한 보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회의를 통해 광주·전남이 걸어온 민주주의 역사에 경의를 표하고,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 교통망 확충 등 호남의 핵심 과제를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게 된 서삼석 지명직 최고위원은 향후 호남 발전 방안을 당 지도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호남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

을 막아내고 탄핵 민심을 이끌어낸 중심지였다. 호남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의료 인프라 확대와 첨단산업,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 지역에 추진 중인 고압직류송전망(HVDC)과 인공지능(AI) 기반 전력망 구축을 ‘에너지 고속도로’로 규정하고, 전남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전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은 “전남은 지난 대선에서 85.87%라는 전국 최고 득표율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견인했다”면서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달리 전남에는 아직 가시적 성과가 없어 도민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은 “기후에너지부의 호남 유지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고위 회의 전 광주·전남 지역 의원 다수가 불참한 데 대해 정 대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이현규 기자 gnnews1@

10월 해남파인비치 LPGA 대회 열린다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기대

오는 10월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LPGA(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 대회가 열린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업무협약을 통해 세계적인 골프 명문 대회인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개최가 확정됐다.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LPGA 정규투어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세계 최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78명이 참가한다.

또한 갤러리를 비롯해 선수·스태프 등 약 6만명의 국내외 방문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전남 관광지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한층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산업 육성의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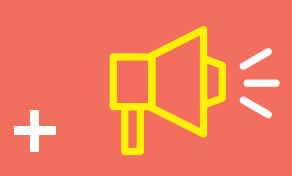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지속·반복적인 노출로 움직이는 영상매체



지역·타겟 맞춤광고 가능



높은 주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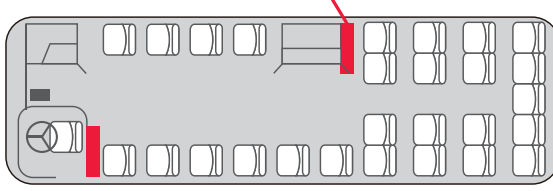


저렴한 광고비

이번정류장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2층
(중흥동)

다음정류장
H | 주 | 광주버스방송

광고매체 위치
운전석 뒤, 하차문 뒤 (총 2개)



버스 내부 모니터 광고 문의 ☎ 062) 223-6511